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5-7절)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무리가 굶주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점심을 건너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어 저녁까지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빌립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지 물으시며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빌립의 믿음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즉 어떤 진짜 믿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즉 무엇이 지금 내 삶에 부족한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9-11절)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가 뭐 그리 대단한 분량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한끼 음식은 어른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아무 의미 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아이의 도시락 됐다. 그것 없어도 된다.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아이가 드린 것을 취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크게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것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넘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12-13절)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요10:10, 빌4:19) 풍성한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유월절의 떡,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0/14(월)	10/15(화)	10/16(수)	10/17(목)	10/18(금)	10/19(토)	10/20(주일)
마 7-9	마 10-12	마 13-15	마 16-18	마 19-21	마 22-24	마 25-26

Q T

이번 주 QT 말씀

10/14(월)	10/15(화)	10/16(수)	10/17(목)	10/18(금)	10/19(토)	10/20(주일)
호 11:1-11	호 11:12-12:14	호 13:1-16	호 14:1-9	갈 1:1-10	갈 1:11-24	갈 2:1-10

나눔

목장 나눔 문제

-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주세요.
- 내 삶속에서 경험한 풍성한 하나님(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어 주세요.